

본당 사목방향

“ 작게, 낮게, 함께 ”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
2월 1일

제1073호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지난주 미사참례 74명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

2월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
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주일의 강론



교구 관리국장
신현욱(루카) 신부

말씀 KEY WORD

구원

(쏘테리온 σωτήριον)

루카복음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유다 사회가 기다리던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희망이자 목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린 삶 안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㉔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부모는 성전에서 아기를 주님께 바쳤다.

(루카 2,22 참조)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온 첫 사내아이를 반드시 하느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맏이는 부모의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이며 장차 부모의 모든 유산을 받게 될 상속자이기때문에, 맏이를 바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헌과 성경에서 말하는 봉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봉헌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봉헌은 하느님의 것을 내가 다시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는 주인이 우리 자신이고, 후자는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쁘게 봉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의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어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욕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이 도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고, 내어놓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봉헌입니다. 사실 우리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그로 인한 각성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고 그분의 손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봉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당 473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3,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4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만 군 의 주 님 그 분 이 영 광 의 임 금 님 이 시 다.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2독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2,14-18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
시고,

15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6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17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8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복 음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22-40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
 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
 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
 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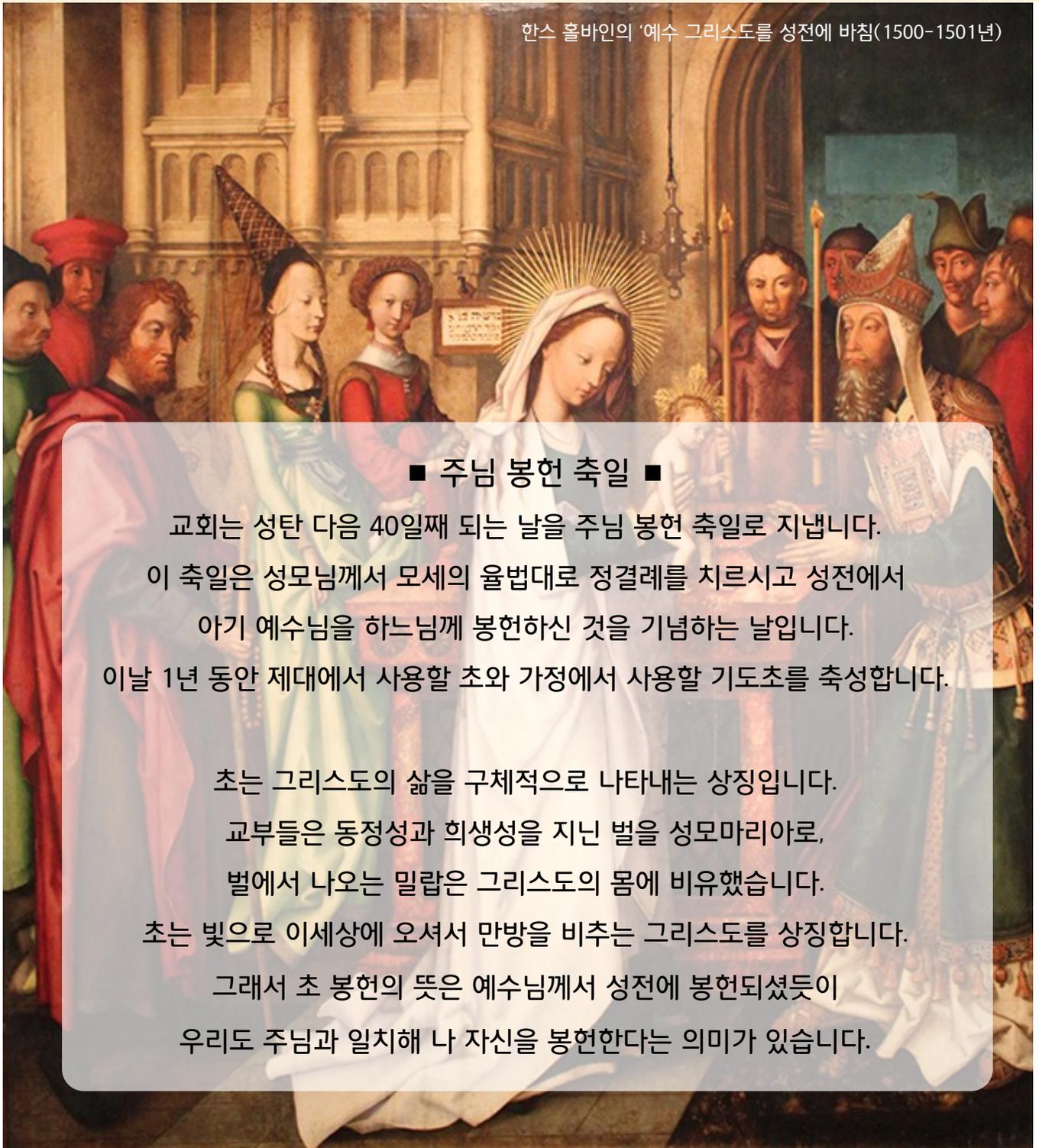
봉 헌 218, 276

영성체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
 을 보았나이다.

성 체 180, 165

파 견 21



한스 홀바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바침(1500-15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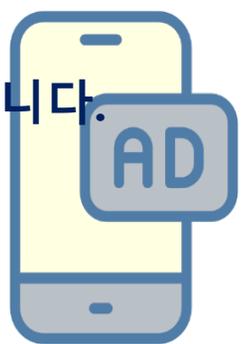
■ 주님 봉헌 축일 ■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을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1년 동안 제대에서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사용할 기도초를 축성합니다.

초는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교부들은 동정성과 희생성을 지닌 벌을 성모마리아로,
 벌에서 나오는 밀랍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초는 빛으로 이세상에 오셔서 만방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 봉헌의 뜻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일치해 나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교우업체 광고주 ~ 님 ❖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미루다 보면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

- 오늘 미사는 동관 주임 신부님이신 장천주 다니엘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 2월 2일 주일 저녁 미사 없습니다.
 - 2월 5일 수요일 평일미사 없습니다.

< 돈보스코 신입 복사단 모집 (1/18~2/15) >

- 대상 :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 신앙심이 깊고
 -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학생
- 신입복사 교육일정 : 3월1일 ~ 3월29일(5주) 매주 토요일 13:00 ~
 - 14:00 (석실성당 교리실)
 - 신입복사 입단식 : 4월 5일 예정
- 입단 신청 문의 : 복사 지도교사 주인성 시몬
 - (186 2100 3357 / 위챗ID : jslkhs)



< 주임 신부님의 성지 순례 >

주임 신부님께서 성지 순례 중 루르드와 파티마 성지에서 저희 광저우 공동체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남은 순례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교우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축복식 안내 >

오늘 2월 1일(토)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1년동안 본당에서 사용할 미사초와 가정에서 사용할 기도초를 축복하는 초 축복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져 오시거나 데스크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빨랑카 접수 안내 >

2025년 한 해 동안 본당 전례에 사용할 초,미사주를 위해 많은 봉헌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주님 봉헌 축일까지 재무데스크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강창구 베네딕토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김우창 시몬, 김재현 이냐시오, 박기형 알베르토, 양훈모 야고보,
윤현종 사도요한, 이정훈 프란치스코, 이지훈 마태오, 정준영 알렉산드로, 주인성 시몬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옥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들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웬성

■ 증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SBC SC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동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동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 설치전에 구버전 성당APP은 삭제 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신청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